

장성군 “반도체 단지·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추진을”

김한중 군수, 국회 방문·당부 여야의원에 사업 당위성 설명

김한중 장성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찾은 김한중 군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 기획재정부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면담을 갖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은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김한중 군수의 국회 방문은 오는 27일 공모 마감을 앞두고 장성 유치를 힘을 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광주·전남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

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 간 약속인 'RE100'을 고려했을 때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성군은 부지와 용수 확보가 유리해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관련정책 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장성나산단지 일원이 사업 대상지다.

충청권 오송첨단의료단지, 영남권 대구경북첨단의료단지와 함께 삼각벨트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지역구 이개호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9일 양향자 의원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국회의원, 전남도·장성군 관계자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연구소 설립을 청원하는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 25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군민과 전남도민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귀농·귀촌 동네 작가 8명 모집 구례군, 22일 마감

구례군은 오는 22일까지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동네 작가' 8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귀농·귀촌 동네 작가'는 직접 SNS를 운영해 다양한 농촌 생활 및 귀농·귀촌 사례들을 공유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동네 작가는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구례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동네 작가는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며 콘텐츠 1건당 5만원(월 최대 1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개인 SNS에 게재되어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구례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상반기 공공근로자 22명 모집 영광군, 6월30일까지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3~17일 '20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2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만 18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경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최근 3년 이내 타 재정지원사업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등은 배제된다.

모집인원은 △홍농 작은 도서관 도서 관리 △관광지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 △꽃길 조성 및 관광지 환경정비 등 6개 사업 22명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17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상반기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구례군, 3월3일까지 접수

구례군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구례군 인재육성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장학생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까지다.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초·중학생은 교육장이,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

선발자는 3월말 군 인재육성기금 심의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대학생 29명에 각 200만원, 고등학생 45명은 각 100만원, 중학생 30명 각 30만원, 초등학생 20명 각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가 될 학생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곡성군, 찾아가는 전통수지활법 호응

곡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 건강프로그램인 전통상수활법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전문활법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4명이 읍·면을 순회하며 상수활법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 전반적인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있다. 곡성군 제공

“영광군 통과하는 345kV 고압송전탑 백지화를”

장은영 전남도의원 주장 “영광 5개 지역 통과계획 주민의견 미반영 백지화”

영광지역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등 광역권 전력 공급을 위해 신안군 입자도에서 장성군 동화면

변전소까지 345kV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송전선로는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등 5개 지역을 관통하게 될 예정이다”며 “영광군민에게 갈 큰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통과한다는 사실을 영광군 주민들이 이제야 알게 됐다”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영광의 대표 관광지인 불갑산과 강향선생 유적지 등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됐다”며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영광군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지원금 몇 푼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노선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다”며 “경과지 선정에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담양군,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시범 도입

학교급식지원 계획 최종 확정

담양군이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도입키로 했다. 지역 우수한 농산물 판로가 확보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식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지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군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급식 지원 단계와 범위 등 지원 기준을 정했다.

지원 규모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유전자 변형식품) 식재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안)학교에 6억4000만 원, 초·중·대안 학교 무상급식 지원 10억9000만 원 등으로, 모두 56개교에 17억 원을 지원한다.

담양군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정확한 통계 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급식 수요기관과 공급자가 온라인 상에서 식단 편성에서부터 식재료 거래, 지역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식재료 안전성까지 모든 관련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담양 쌀과 우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고인돌 축제 사전점검 보고회 화순군, 탐방열차 운영 등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4월21일부터 30일까지 ‘봄꽃과 함께하는 고인돌 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8일 고인돌유적지 현장에서 사전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화순군의회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가 사계절 축제에 대한 보고회를 설명하고 탐방열차 시승식을 하는 등 성공축제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화순군은 고인돌유적지 내에 수선화, 튜립 각 3만 주, 구절초 7만 주, 마가렛 18만7500주 등을 1차로 구입했다.

축제 기간 동안 도곡면에서 춘양면으로 넘어가는 3km 구간엔 탐방열차 2대를 입차해 운영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깨끗한 축산농장’ 접수 축산분야 보조사업 우선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축산악취 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을 통해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지정 농가에는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이들 농가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축산 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61-379-365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